

「우리지역 성평등 리모델링 사업」 권역별 발표회 결과 보고

3. 강동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안전보행거리만들기] 사업을 보다
... 김민선 (강동구 어린이안전학교)
지역사람들 '생각' 이야기
최영희 (중랑구청 가족복지과) 최은숙 (강동구청 가정복지과)
전체 이야기 나누기 "함께 할 일 찾기"

□ 개요

- 목적 : 각 지역의 모니터링 활동 및 결과에 대한 전체 공유
지역 성평등 정책을 위한 지역 '젠더거버넌스' 구성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지역 성평등 정책을 위한 지역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형성

○ 일시 및 장소

지역	시간	장소
동부 권역 - 강동, 광진, 동대문, 중랑 -	10월 12일(월) 오후3시	동부여성발전센터 3층 2강의실
중서부 권역 - 구로, 서대문, 양천 -	10월 14일(수) 오전9시30분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갤러리4
남부 권역 - 관악, 동작, 서초 -	10월 14일(수) 오후3시	서울여성플라자 2층 도서관 여기

○ 중서부 권역

* 진행 : 송문이 (지역멘토, 양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시작이야기. 인사나누기
지역에서 '젠더거버넌스'를 시작하다 (경과)
지역이야기
1. 구로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금연 사업]을 보다. ... 조미순 (더초록)
2. 서대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2년째 계속 보다
..... 이태영 (The좋은예산)
3. 양천 [자율방범대]를 만나다. 이경란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지역사람들 '생각' 이야기
김희서 (구로구의원), 장미현 (서울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전체 이야기 나누기 "함께 할 일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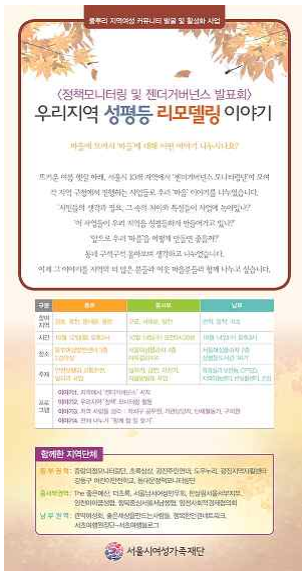
○ 남부 권역

* 진행 : 박신연숙 (지역멘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센터장)
시작이야기. 인사나누기
지역에서 '젠더거버넌스'를 시작하다 (경과)
지역이야기
1. 관악 삼성동의 공중화장실과 보안등을 살펴보다 ... 박명희 (관악여성회)
2. 동작의 안전과 지역아동센터를 둘러보다 ... 박진옥 (행복한인권네트워크)
3. 반딧불센터와 보건소의 건강발상을 보다 김현이 (서초여행원정단)
지역사람들 '생각' 이야기
정정숙 (등작구청 가정복지과) 박민정 (관악구청 가정복지과)
박경희 (서초구청 여성가족과) 배화정 (인디여성연구소장)
전체 이야기 나누기 "함께 할 일 찾기"

□ 프로그램

○ 동부 권역

* 진행 : 장이정수 (지역멘토, 중랑의정모니터링단)
시작이야기. 인사나누기
지역에서 '젠더거버넌스'를 시작하다 (경과)
지역이야기
1. 중랑 [안전문화운동,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 김주희 (초록상상)
2. 광진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노인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보다
... 모은숙 (광진주민연대)



- 보행자도로 개선사업은 방학 시기에 진행되어야 함 : 공사로 인해 아이들에게는 더 위험해 보임
- 학교밖 청소년 사업을 학교에 소개하여 적극적으로 연계하고자 함
- 구의원과의 미팅이 새로운 경험이었고 효과적이었음
- 토론 :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할 필요가 있음 (00구청)
정책 개선안에 대해서 사업부서에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개선안 반영여부도 확인할 예정임 (00구청)
학교밖 사업의 학교 연계는 2016년도 사업에 반영하겠음 (00구청)
- 평가 및 제안
○ 모니터링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였음. 그러나 새로운 활동 기회가 됨
- 교육 관련
: 기초교육이 좀더 충분히 진행되면 좋겠음. 시민 눈높이 교육 필요
: 시민이 함께 하는 공무원 교육도 고려해주면 좋겠음
: 모니터링 관련한 사례를 통한 이해 교육 제안
- 모니터링 활동 관련
: 모니터링 활동도 좀더 일찍 시작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차별로 이 활동의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면 좋겠음
: 짧고 쉬운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진행하면 좋겠음
(처음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힘든 과정임)



□ 주요 내용

○ 동부 권역

- 중랑 4개 사업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안 제안
○ 안전문화운동의 간담회 대상자를 확대 실시 : 더 많은 주민 참여 필요
○ 주민참여예산 : 돌봄서비스 지원 필요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참여자 고려한 홍보방안 고려
- 광진 3개 사업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안 제안
○ 일자리사업 : 대부분 저임금일자리일뿐. 다양한 사업 개발이 우선
○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젠더 인식 반영 필요
- 강동 2개 사업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안 제안

○ 중서부 권역

- 구로지역 발표 및 제안
 - 설문지작업과 사업담당 공무원의 논의 진행
 - 금연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는 성인지적이었으나 실행여부는 확인해 보려함
 - 사업 참여자들의 사고가 확장되었음
 - 모니터링 시기 수정 필요 : 7월은 담당공무원의 보직 이동 시기임으로 모니터링 활동이 어려웠음
 - 공무원 성인지 인식은 여전히 낮아보임. 해결 방안을 같이 마련해야 함
- 서대문지역 발표 및 제안
 - 2년 연속되는 사업으로 설문지 작업을 진행하였음
 - 2014년도 주요 조치사항에 대한 환류점검을 진행하였음
 - 2014년도에는 시설 중심이었고, 올해는 도로 중심으로 확장시켰음
 - 개선안 제안 : 안전한 도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 거버넌스 관련 : 구청담당자와의 관계 맺기 성과있음. 지역사회와의 공유 방법 모색해야 함.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서 역할을 키워가야 함
- 양천지역 발표 및 제안
 - 자율방법대 : 교육은 지구대(경찰)에서 진행하고 비용은 구청에서 지급하는 관계로 교육내용에 대해 제안하는 것이 효과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체계임
 - 진로직업체험센터 : 참여자(교사 학생) 설문이 어려웠음 - 문진박대도 당함
 - 모니터링 활동의 어려움 : '메르스'라는 사회적 특별 상황 발생함. 사업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내용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기 어려웠음
 - 설문지 작업을 함 : 내용 만드는 것에서부터 주민들에게 설문받는 과정이 모두 어려웠음
- 토론
 - 김희서(구로구의원)
 - : 권한이 분리되어있고 실무담당자의 권한이 없는 공무원 사회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모니터링 과정 자체가 정책에 있어 중요한 모티브로 작동할 수 있겠다
 - : '성인지'에 대해 의원도 공무원도 인식이 낮다. 초창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사례로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며 이 과정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 : 아직 성별에 따른 사고가 인식하지 않기에 전반적 사회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 : 의회에서도 관심갖겠음. 지속적인 모임으로 진행되면 좋겠음

○ 컨설턴트

- : 아직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임
- : 하지만 거버넌스에 구색맞추기라도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은 기회로서 의미 가 있다고 생각함
- : 전문가와 시민(주민)의 영향력에 있어서 공무원이 체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활동이 더욱 중요함
- : 모니터링 활동 및 정책 제안을 위해서는 행정시스템에 및 예산구조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겠음
- :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라도 공무원에게 '거버넌스 관련 교육 지원 이 있어야 함
- 참여자 평가 및 제안
 - : 대상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통합적 접근이 어려웠음'
 - : 행정 흐름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활동이 좀더 쉬웠을 것 같음. 향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함
 - : 공무원을 대면한다는 것이 낯설고 힘들었음
 - : 지식과제로 진행하면서 내용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컸었음. 인터뷰 대상자 및 담당자들에 대한 부담감이 컸었음
 - : 지역에서 지속시켜야 하는데, 활동력에 한계도 느끼고 점점 주제 발굴이 쉽지 않음
 - : 마을 활성화에 대해 알게 되었고, 현실적 장벽도 느꼈음
 - : 정책과 예산에 대해 좀더 공부해 보고 싶음
 - : 지역내에서 네트워크 성과가 있었음
 - : 이 활동이 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되면 좋겠음



- : 주민과 관련 있는 개선 조치사항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 00구청 담당과장
 - : 젠더거버넌스 개념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해가 됨
 - : 제안된 내용을 피드백 하도록 하겠음
- 00구청 담당자
 - : 구청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였음
 - : 서로에게 시너지 작용이 된 것 같음
- 컨설턴트
 - : 젠더거버넌스 활동은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확산시켜내는 과정임
 - : 구조적인 논의틀도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음
 -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정책에 대해 기획, 운영, 평가를 시민과 함께 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임
- 평가 및 제안
 - 지역에 집중할 수 있어 좋았지만,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더 활발해 졌으면 좋겠음
 - 행정공무원과 정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함으로써, 신뢰가 형성되고 개선안 도출, 환류 점검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논의를 더 확장시켜가는 것을 재단 역할로 가져갔으면 함



○ 남부 권역

- 구로지역 발표
 - 모니터링 대상 지역이 재개발이 묶여있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었음
 - 지역 안전문제에 대해 모니터링으로 연계됨 : 공공화장실과 보안등
- 동작지역 발표
 - 지역주민 성별-연령에 따른 설문조사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라 집중되는 안전의 내용(관심사)가 다름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역자원 활용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서초지역 발표
 - '젠더거버넌스'라는 것을 처음 듣고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음
 - '반딧불센터' 자원봉사자가 모두 여성이었음. 젊은 층으로의 확대 방안 필요
 - 건강발상에 있어서의 젠더차이 접근이 어려웠음. 대부분 참여자가 여성임. '건강'에 있어서의 남녀차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음
- 토론
 - 00구청 담당자
 - : 제안 내용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치사항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음. 앞으로는 사업담당자도 함께 참여하면 좋겠음
 - : 시민이 시민을 인터뷰하면서 속깊은 내용들이 발굴된 것 같음

